“서툴지만 혼이 담긴 작품이에요”

성북장애인복지관 ‘사랑을 담은 그릇전’ 개최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현관 스님과 김설한양이 꽃병을 들고 있다.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만든 도예품은 성북구청 1층 성북문화홀에서 7월 9일까지 전시된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6월 28일~7월 9일 성북구청 1층 성북문화홀에서 도예전시회 ‘흙으로 빚는 아름다운 세상 – 사랑을 담은 그릇展’을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된 도예품은 성신여대 조형연구소 이만수 교수의 지도아래 매월 1회 40여 명의 장애인들과 미래에셋 직원 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행사에는 작업을 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컵, 그릇, 꽃병 70여 작품이 전시돼 있다.

28일 열린 개막식에서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성훈 사회복지사는 “이번 전시회가 참여자 장애인에게는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사회 참여를 이끌며, 비장애인에게는 예술 ·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설한양은 “이거 제가 만든 꽃병이에요”라며 전시돼 있던 자신의 작품을 들기도 했다. 전시장을 찾은 김선영군의 어머니 김윤옥씨는 “아이가 1년간 끈기 있게 한 가지에 몰두하고 또 본인이 재미있어 하니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2007년 문을 연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사회 기능 재창출을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딱딱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지루해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과 문화 · 예술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예’를 도입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도예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신여대 조형연구소(소장 이만수), 미래에셋 직원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성신여대 조형연구소 팀과 미래에셋 직원 봉사자들은 장애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왔다. 덕분에 장애인들은 자신의 개성을 살린 작품을 만들었다.

복지관장 현관 스님은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든 후 불에 구워내는 도예활동은 지적장애인들의 표현력을 다양하게 하고 근육 강화를 통한 신체 발달과 재활 의지를 높여준다. 손으로 하는 활동은 말초신경을 자극해 두뇌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만수 교수는 “장애인은 인지 반응이 느릴 뿐이지 모자람이 없다.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의 진심과 감동을 느꼈다. 서툰 솜씨지만 만드는 사람들의 혼이 담겨있는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사랑을 담은 그릇展에 전시된 작품은 판매될 예정이며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프로그램 기금 및 재활 훈련비 등으로 사용된다. (02)915-9200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재가자 역할 확대해야”

생활의례문화원, ‘상장례 염불 재가불자의 역할’ 토론

상장례 의례에는 스님의 역할이 있고,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스님의 역할을 재가불자들이 대신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상장례 염불을 할 때 재가불자의 역할은 어디까지 인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6월 28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상장례 염불 재가불자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준영 불교인재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철원 심원사 포교국장 선현 스님,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생활의례봉사단 강홍원 단장, 조계종 법요집 편찬연구위원회 이성운 연구위원, 봉은사 지장 상조회 이종완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 불교생화의례문화원의 염불봉사자와 각 사찰의 염불 봉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강홍원 단장은 “상장례시 불교식 장례를 치르려는 불자들이 많은데 활동하는 스님들의 수가 적다. 또 49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불자들도 있다.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재가불자들이 상장례 염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현 스님은 “‘스님들이 장례용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율이 있지만 현재 불교가 가야 할 길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회장은 “종단에서 상장례 염불시 재가자가 요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혼들이 편안함을 얻는데 가장 좋은 소리가 요령소리이다”며 말했다.

봉선사(주지 인묵) 구연회 홍문숙 회장은 “봉선사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을 통해 재가불자들이 스님과 똑같이 상장례 염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패널은 “스님들이 상장례 의식을 꺼려하고 있고, 또 포교를 위해서 재가자의 염불봉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종단에서 재가불자들이 염불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법요집 등을 만들고 통일된 의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말이 아닌 충실한 홍보대사 될 것”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 · 길거리 캠페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6월 28일 홍보대사와 함께 장기기증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대학생 봉사단, 김혜옥씨, 일면 스님, 한혜진씨, 박상민씨가 참가했다.

불교계 장기이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주최한 장기기증 캠페인이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열렸다.

장기기증 캠페인에는 일면 스님, 홍보대사 가수 박상민씨, 가수 한혜진씨, 배우 김혜옥씨와 대학생 봉사자 20여 명, 생명나눔 봉사단 보현회 회원들 10여 명이 참여했다.

홍보대사들은 인사동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홍보물 ‘생명을 나누세요’를 나눠주며 “꼭 읽어보시고 좋은 일 하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후덥지근한 날이었지만 인사동일대에 있던 시민들은 먼저 와서 장기기증, 생명 나눔에 관심을 보였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홍보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대학생 봉사단 장자경(성균관대 4)양은 “우리들(대학생 봉사단)만 거리 캠페인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홍보대사들이 참여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이 15년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더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을 하고 생명을 나눠 아픈 이들에게 희망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옥씨는 “연예인 홍보대사들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 점을 살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장기기증을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앞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가수 박상민씨와 한혜진씨는 일면 스님에게 위촉장을 받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서에 서명하며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상민씨와 한혜진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받게 된데는 김혜옥씨의 공이 크다. 김혜옥씨가 박상민씨를 설득했고 마음을 낸 박상민씨가 한혜진씨를 설득한 것.

위촉장을 받은 박상민씨는 “말로만 하는 홍보대사가 아니라 역할에 충실한 생명나눔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혜진씨는 “처음 장기기증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절차가 복잡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부담스럽지 않다”며 “생명을 나누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건대병원법당 약사여래부처님 점안

건대병원법당 지도법사 법경 스님(능인정사 주지)이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식을 거행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한 보살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불교법당(지도법사 법경)이 6월 24일 확장이전 및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직지사 전 주지 자광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정송학 광진구청장, 병원 직원 불자회, 봉사자, 환자들과 그 가족 15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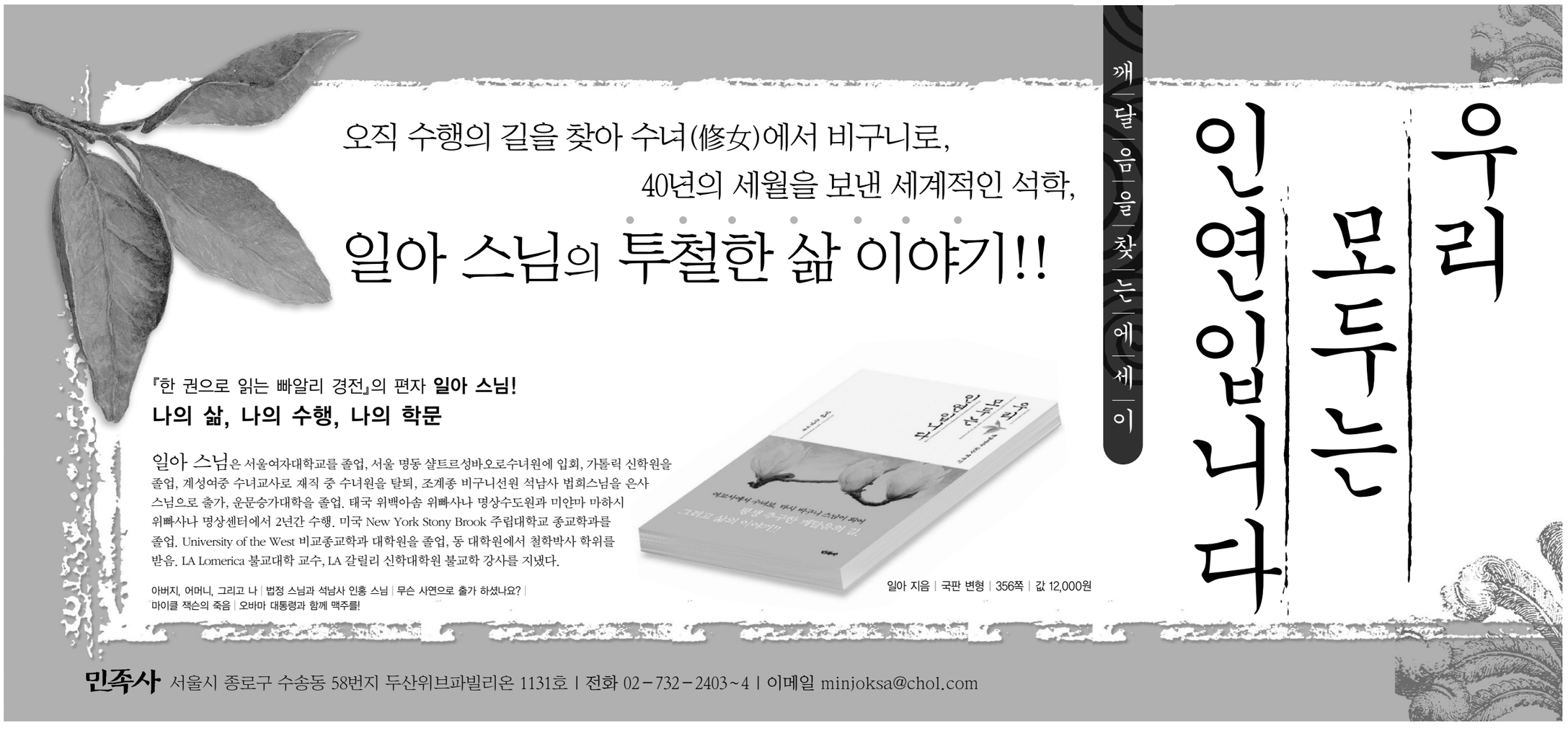
지도법사 법경 스님은 “몸이 아픈 환자의 고통을 씻어주는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전달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02)2030-7963

박선주 기자

환자 · 가족들의 바람 엮은 〈소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상실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할지 모를 만큼 힘겨워질 때가 있다.

병원법당을 지키는 지도법사 스님은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한 발 앞선 희망을 가지게 한다. 18년째 서울아산병원 법당을 지키고 있는 지홍 스님(서울 암사동 정향사)은 병실을 방문해 환자를 볼 때마다 “부처님, 저 환자로부터 아픔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인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온과 자비심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원〉은 병원 법당에 놓았던 소원지(방명록)에 적힌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바람을 수안 스님의 그림과 함께 엮은 것이다.

박선주 기자